

0-
주리호

여성에게 꿈을 주는 문국현이 희망이다 !
그는 국가 디자이너로 우리 삶을 혁신할 것이다.

여성은 21세기 사람중심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3W(Women, Web, World) 시대'로 예견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분업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꿰뚫어 보고 남녀평등 관점에서 여성을 21세기를 이끌어갈 개척자로 중심에 세우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살려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양극화, 중산층 몰락,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고 850만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지금의 낡은 패러다임에 안주하여 여성과 약자의 삶과 꿈을 빼앗는 천민자본주의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누리는 번영의 길로 전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문국현 후보는 유한킴벌리에서 평등한 고용과 대우를 실현하였고 여성인재 발굴과 임원 등용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4조2교대로 부부가 같이 육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근무환경과 산전, 후 휴가, 수유실 설치, 유급육아휴직 확대, 보육비 지원 등, 가정과 일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의 성공모델을 일구어 냈습니다. 또한 우리 강산을 푸르게 가꾸는 일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였고 자신의 수입 50%를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함으로써 시민사회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개방적인 분위기의 토론문화를 이끌면서 손수 차와 다과를 대접하는 CEO, 두 딸에게 다정하면서도 홀로서기를 고집하는 아빠, 아내에게 인생의 동반자로 부드러움과 섬김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국현 후보는 과로노동과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행복을 훼손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유희노동력이 실업으로 가정 불안을 더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5백만 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사람중심의 진짜 경제의 가치를 담고 있어 우리 여성들은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를 낳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평생학습을 직장에 도입한다는 그의 비전이나 전문서비스직 일자리와 여가문화 서비스 산업에서의 350만개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에 거는 여성들의 기대는 큼니다.

우리는 기존 권력이나 국회의원 숫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심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문국현 후보의 태도에 큰 박수를 보내며 여성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문국현 후보에게 여성들의 미래를 걸고자 합니다.

우리는 약자 중심, 사람중심으로 한국사회와 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문국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합치고자 합니다. 결과 속이 한결같고 남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마음 따뜻한 후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문국현 후보가 한국의 희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07. 10. 8

문국현 후보 여성지지 선언 제안자

강윤주(경희대 사이버대학 교수), 김제남(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경(풀무원 건강생활 부사장), 김후란(시인),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안상남(여성교회 목사), 안선영(변호사), 윤수경(남북평화재단 이사), 이가옥(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경 (도요새 대표이사), 이미영(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이사), 이상화(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이정자(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상임대표), 이해경(문화예술기획인), 임영숙(전 서울신문 주필), 전순옥(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정해순(살림원 대표이사), 차승희 (이지탐건설 대표이사)

18

여성에게 꿈을 주는 희망전도사 !

우리 여성들은 젠더디자인(gender design)으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문국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따뜻하고 혼이 살아있는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패러다임에 안주하여 변화의 동력을 상실한 채, 여성과 약자의 삶과 꿈을 빼앗는 천민자본주의의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부장적인 성역할 분업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3W(Women, Web, World)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며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성은 21세기 사람중심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개척자들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꿰뚫어 보고 성인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문국현 후보는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난 30년간 평등한 고용과 대우를 실현시켰고,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임원으로 적극 등용하였습니다. 4조2교대로 부부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전,후 휴가, 수유실 설치, 유급육아휴직 확대, 보육비 지원 등 가족친화기업의 성공 모델을 일구었습니다. 또한 일찍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을 선도하였고 환경, 여성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장애인과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다른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평등 감수성으로 여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개방적인 분위기로 토론문화를 이끌면서 손수 차와 다과를 대접하고, 두 딸에겐 다정한 아빠로 아내에겐 인생의 동반자로 부드러움과 섬김을 지닌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문국현 후보에게 여성들의 미래를 걸고자 합니다. 성평등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정책, 그리고 진정성을 갖춘 문국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여성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력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보육서비스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문국현 후보입니다. 문국현 후보와 함께하면 우리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젠더디자인으로 한국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문국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배려에 익숙한 따뜻한 후보, 미
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양성평등이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동력임을 믿는 문
국현 후보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2007. 10. 8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들

박영숙, 이정자, ...

math?

여성에게 꿈을 주는 희망전도사 !

우리 여성들은 젠더디자인(gender design)으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문국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여성은 21세기 사람중심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꿰뚫어 보고 성인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살려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따뜻하고 혼이 살아있는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패러다임에 안주하여 변화의 동력을 상실한 채, 여성과 약자의 삶과 꿈을 빼앗는 천민자본주의의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문국현 후보는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난 30년간 기업에서 평등한 고용과 대우를 실현시켰고,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임원으로 적극 등용하였습니다. 4조2교대로 부부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전,후 휴가, 수유실 설치, 유급육아휴직 확대, 보육비 지원 등 가족친화기업의 성공모델을 일구었습니다. 또한 일찍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을 선도하였고 환경, 여성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장애인과 노인층과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비인격적 발언을 한 사람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개방적인 분위기로 토론문화를 이끌면서 손수 장내를 정리하고 차를 대접합니다. 두 딸에겐 다정한 아빠로 아내에겐 인생의 동반자로 부드러움과 섬김을 지닌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문국현 후보에게 여성들의 미래를 걸고자 합니다. 성평등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정책, 그리고 진정성을 갖춘 문국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여성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력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보육서비스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문국현 후보입니다. 문국현 후보와 함께하면 우리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면서 한국 사회를 발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문국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합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과 속이 한결같고 남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마음 따뜻한 후보,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양성평등이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동력임을 믿는 문국현 후보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2007. 10. 8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들

박영숙, 이정자, 이가옥, 전순옥

(여성)

혼이 있는 사람입국의 신화를 창조할 연금술사 !

여성에게 꿈을 주는 희망전도사 !

우리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뉴 프론티어
문국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신자유주의

이번 대선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구시대적인 콘크리트 토목경제를 앞세워 서민들의 삶과 꿈을 빼앗는 천민자본주의의 길로 갈 것인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품격있는 창조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양극화로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이 빈민화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 부모도 자식도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며 전체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려가고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만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부패사회, 재벌의 황제적 권력을 옹호하고 온 국토를 파헤쳐 콘크리트 숲으로 만드는 가짜 경제는 여성의 적입니다. 정의와 평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며, 여성은 21세기 사람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개척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꿰뚫어 보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회 모든 현상에 차별적 사고를 내보이며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는 사람, 재벌을 옹호하고 토건국가 건설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사람만이 힘이다”라는 소신을 몸소 실천해 왔으며, 특히 여성, 농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비정규직
2차산업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정

2차산업
Leadership

2차산업
비정규직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지난 30여 년간 가족친화경영을 앞장서 실천해 왔고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근절했으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전적으로 양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가족친화경영을 만들고, 비정규직 양산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75%까지 확대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2007년 12월 19일 언행일치와 도덕적 가치를 체화한 대통령, 따뜻한 진정성과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대통령, 양성평등이 한국의 뉴 패러다임을 가져올 동력임을 믿는 대통령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문국현 후보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2007년 10월 일

문국현 후보와 함께 혼이 있는 따뜻한 번영을 꿈꾸는 여성들 (인)

박영숙, 이정자, ...

문국현이 희망이다 !

그는 국가 디자이너로 우리 삶을 혁신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양극화, 중산층 몰락,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고 850만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기죽어 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금의 낡은 패러다임에 안주하여 여성과 약자의 삶과 꿈을 빼앗은 천민자본주의의 길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누리는 변영의 길로 전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는 '3W(Women, Web, World)시대'로 예견하며 여성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듯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분업이 잔존하고서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꿰뚫어 보고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21세기를 이끌어갈 개척자로 중심에 세우고 한국사회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지난 30년간 문국현 후보는 유한킴벌리에서 여성의 파트너십과 능력을 인정하여 평등한 고용과 대우를 실현하였고, 여성인재 발굴과 임원 등용에서 기록을 세웠다. 4조2교대로 부부가 같이 육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근무환경과 산전,후 휴가, 수유실 설치, 유급육아휴직 확대, 보육비 지원 등 가족친화기업의 성공모델도 일구어내는 가운데 그에게 다섯 번이나 사장직이 맡겨졌다. 우리 강산을 푸르게 가꾸어왔고 도시숲 만들기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선도한 점과 아울러 그의 수입 50%를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함으로써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한 바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2천만 명 가족이 속해있는 중소기업체의 과로노동과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행복을 훼손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유희노동력이 실업으로 가정 불안을 더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그의 5백만 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사람중심의 진짜경제의 가치를 담고 있어 그에게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지식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를 낳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평생학습을 직장에 도입한다는 그의 비전이나 전문서비스직 일자리와 여가문화 서비스 산업에서의 350만개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에 여성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편안한 분위기의 토론문화를 이끌면서 손수 차와 다과를 대접하는 CEO, 두 딸에겐 다정하면서도 홀로서기를 고집하는 아빠, 아내에겐 인생의 동반자로 부드러움과 섬김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이다.

지도자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기존 권력이나 국회의원 숫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심의 지지를 얻고자하는 문국현 후보의 태도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제 우리들은 여성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문국현 후보에게 여성들의 미

래를 걸고자 한다.

우리는 약자 중심, 사람중심의 디자인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문국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나섰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문국현 후보가 한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희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7. 10. 8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들

박영숙, 이정자, ...